

서평 | Review

브라이언 R. 로버츠의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¹⁾

박윤주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 읽기

필자는 브라이언 R. 로버츠(Bryan R. Roberts)의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The Making of Citizens: Cities of Peasants Revisited, London: Arnold, 1995)를 석사과정 첫 수업이었던 『라틴아메리카사회학개론』의 교과서 중 한 권으로 만났다. 지금도 누군가 라틴아메리카를 사회학자로서 연구하게 된 계기를 묻는다면 이 책과 이 책의 저자이며 이후 나의 지도교수이자 멘토가 된 브라이언 R. 로버츠 교수와의 만남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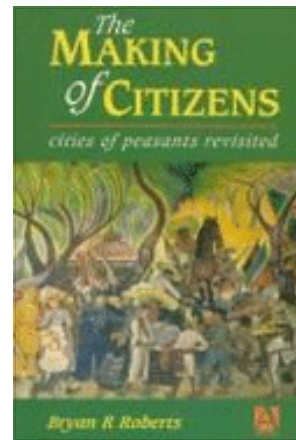
연구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학은 국제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를 더 많이 다루는 학문이다. 상당히 국제화되어있는 다른 학문영역, 즉 정치학, 인류학, 역사학 등과는 달리 사회학은 학자들이 속한 국가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한국사회학회가 한국의 사회학회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학회라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통용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

1) Bryan R. Roberts, *The Making of Citizens: Cities of Peasants Revisited*, London: Arnold, 1995.

국 사회학회 또한 미국의 사회학회라기 보다는 미국사회를 연구하는 학회의 성격이 강하다. 매년 열리는 미국사회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논문 중 미국사회가 아닌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거나 다양한 사회를 비교연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회학적 관점, 즉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변인을 구조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시 개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는 관점은 다양한 사회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최적의 도구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 사회학계에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다양한 사회를 비교분석하려는 사회학자들의 노력은 사회학 발전을 위해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를 매우 잘 보여주는 연구서가 바로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정치학, 역사를 고찰하는 역사학,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과는 달리 특정한 사회현상이 아니라 ‘사회’이다. 즉 사회 그 자체 또는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다양한 사회구조이다. 사회학은 이러한 다양한 구조의 구성과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구조들이 다시 개인과 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따라서 사회학은 본시 매우 거시적인 학문으로 출발하였으며, 사회학의 고전적 이론가로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등이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인과 집단의 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들을 연구하면서 사회학자들은 역설적으로 사회구조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곤 한다. 물론 20세기 말 불어 닥친 포스트모더니즘의 허물기 열풍 속에서 구조와 개인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개인들의 행위(action)와 집단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좀 더 미시적인 접근들이 선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회학의 역사 속에서 거시적 접근과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사회학의 토대가



되어온 사실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브라이언 R. 로버츠의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가장 고전적인 사회학적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분석한 연구물이다.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통해 저자가 밝혀낸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발전 전략과 한계는 매우 흥미롭고 유의미하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적 성과뿐 아니라 이 연구에 사용된 사회학적 연구방법론 또한 이 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즉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변화—이 글에서는 도시화—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분석하는 저자의 노력은 유럽의 정치·역사·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근대사회의 탄생을 이해하고자 했던 고전적 사회학자들의 그것과 닮아있다. 그 결과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발전을 면밀히 고찰한 발전사회학의 주요 저서이자 고전적 사회학 방법론을 교과서처럼 적용한 우수한 사회학 연구서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기에 이 책은 1978년 전신인 『농민들의 도시』(Cities of Peasants: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iza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Arnold, 1978)로부터 1995년 개정판인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거쳐 오늘날까지 라틴아메리카 사회학을 대표하는 명저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라틴아메리카 사회학을 대표하는 명저의 하나로 추천한다.

브라이언 R. 로버츠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저자인 브라이언 R. 로버츠는 현재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미국에서 생겨났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사회학의 메카로 불리던 시카고대학교에 유학하였고,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3

년 만에 취득하였다. 어떻게 그리 빨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시카고의 날씨가 너무나도 나빠서 하루라도 빨리 시카고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시카고의 날씨가 너무나 싫어 학위를 일찍 끝낸 브라이언 R. 로버츠가 라틴아메리카를 평생 연구할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브라이언 R. 로버츠의 박사논문 주제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에 따르면 그의 박사논문은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지루한”, 당시 사회학계의 유행을 반영한 교육사회학 논문이었다. 학위를 받고 그는, 시카고대학교 재학시절의 유일한 행운이었다고 주장하는 부인과 함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맨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1964년부터 1986년까지 교편을 잡았다.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처제 부부와 함께 여행한 페루의 매력에 매료되어 라틴아메리카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을 계속 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매우 개인적인 사심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농담은 실은 필자를 비롯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연구 동기(?)가 아닐까 싶다.

브라이언 R. 로버츠가 스스로 밝힌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동기는 매우 사소하고 겸손하지만, 그의 연구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1978년 그는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전신인 『농민들의 도시』를 발표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와 발전의 문제를 고찰하여 제3세계의 도시화와 발전의 문제를 자본주의의 팽창과 계급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해해야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당시 도시와 도시화에 대한 연구의 주제가 인구의 이동, 도시의 경제적 효과 혹은 지리적 의미의 도시 성장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도시화에 대한 접근은 당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농민들의 도시』의 성공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와 발전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 연구 파트너였던 인류학자 노먼 롱(Norman Long)과

의 협업을 통해 그는 1984년 『광부, 농민 그리고 사업가들: 페루 중부의 지역 발전』(Miners, Peasants and Entrepreneurs: Regional Development in Central Peru, London: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84)라는 책을 공동집필하는데, 이 책에서 그는 『농민들의 도시』에서 얻었던 이론적 성과를 페루에 적용·확장시켰다. 즉 라틴아메리카의 발전과 이에 따른 계급의 형성과정의 어떻게 페루 중부에서 나타났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서로 다른 계급의 형성을 추동한 사회적 동인을 밝히고 이들 계급의 사회적 행동들(social actions)을 분석하였다. 거시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다시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행동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이미 1984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학자로서 발전 사회학(Sociology of Development)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가 알체티(E. Archetti) 그리고 캐맥(P. Cammack)과 함께 1987년에 공저한 『발전사회학』(The Sociology of Development, London: Macmillan, 1987)은 이 분야의 교과서이다.

『농민들의 도시』의 성공과 함께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대표적 사회학자의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브라이언 R. 로버츠는 1986년 텍사스대학교의 사회학과로 자리를 옮긴다. 왜 텍사스대학교로의 이직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브라이언 R. 로버츠는 오스틴의 날씨가 좋았고,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대처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이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직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다시 한 번 너무나 겸손한 대답이다. 브라이언 R. 로버츠에게 1960년대 말 첫 번째 교환교수의 기회를 주었던 텍사스대학교는 이미 그 당시부터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중심이라고 불릴 만큼 라틴아메리카 연구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다. 한편, 텍사스대학교 사회학과는 인구학연구센터(Population Research Center)를 통해 인구학 연구의 세계화를 진행하며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피력하

고 있었다. 사회학과와 대학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후보로서 초빙된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부임과 동시에 미국 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명예로운 석좌교수인 C.B. 스미스 교수(미국-멕시코 관계 분야)로 선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텍사스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 이주,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의 학문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인류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등 다양한 학문 영역의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학의 범위와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라틴아메리카 현지 학자들과의 왕성한 공동연구는 그의 연구가 단순히 영어권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현지에서 평가 받고 소비되며 나아가 재해석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최근에 브라이언 R. 로버츠는 1968년 자신이 처음으로 연구했던 과테말라시티로 돌아가 그 당시 연구대상이었던 가족들을 다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4년 은퇴를 준비하며 최초의 연구로 돌아가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일어난 변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분석하는 그의 노력을 보며 학자의 삶이 어떠해야하는지 또한 배워본다.

도시화를 통해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 발달사

도시화는 사회학자들 특히 발전사회학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이다. 한때 도시화 자체가 발전의 척도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을 올리면 발전이 온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고, 아직도 신도시는 발전과 동의어처럼 사용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영토의 97퍼센트가 도시화된 나라로 탈바꿈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근대화와 함께 도시화의 진행, 특히 거대도시들의 등장은 각국의 발전

을 의미하는 듯 했다. 지금도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리우데자네이루 등의 거대도시들이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그리는 이미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도시화는 단순히 발전의 척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도시화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팽창과 이를 둘러싼 계급 갈등의 산물로 분석했다(p.27). 브라이언 R. 로버츠에 따르면, 특정 산업정책의 채택, 그에 따른 노동의 이동, 해외자본의 유입, 농촌의 붕괴와 도시의 탄생이라는 도시화와 관계된 모든 사회현상은 각 사회의 계급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물이다. 따라서 각 사회가 보여주는 서로 다른 도시화의 양상은 각 사회의 서로 다른 발전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계급적 구성과 갈등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브라이언 R. 로버츠가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서 소개한 분석의 틀에 의하면,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한국사회가 가난을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집을 짓게 만든 사회의 계급 구성과 갈등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도시화라는 현상을 둘러싼 라틴아메리카의 계급 갈등과 자본 팽창을 분석함으로써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를 낳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였다(p.156). 그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가 경험한 빠른 도시화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결과 선진국들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종속은 심화되었다. 자기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자본집약적인 산업화를 추진했다는 것은 라틴아메리카가 산업화 초기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과 불평등한 관계를 설정하며 세계경제로 통합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후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경제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다시 라틴아메리카 각 사회에 투영되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불평등을 가져왔다(p.80).

그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세 가지 요소는 국가, 거대 산업 부문, 소외된 비공식 부문이다(p.113). 이 세 가지 요소가 노동 계급의 구성과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강력한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자 개개인을 분석함으로써 저발전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고용과 노동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떠한 노동자 개인이 혹은 이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왜 유독 빈곤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한 구조적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과 계급관계는 경제구조에 의해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거대 산업 부문과 소외된 비공식 부문 간의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이언 R. 로버츠는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였다. 즉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표피적으로 부각되는 거대 산업 부문과 소외된 비공식 부문 간의 알력 및 갈등이 라틴아메리카의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지배계급의 잘못된 고용 행태와 국가 정책의 오류들을 모두 가려버린다는 것이다(p.133).

이 지점은 우리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대해 갖는 중요한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노동운동은 왜 관료화되었는가? 거대한 산업 노조들이 활발한 로비를 펼치는 멕시코 사회는 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을까? 아르헨티나 제1의 공공노조였던 YPF(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의 노조는 왜 그토록 속절없이 아르헨티나국영석유회사의 민영화에 찬성해주었을까? 라틴아메리카의 변혁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진정한 원인인 종속적인 경제 발전과 자본의 무분별한 팽창이 부각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브라이언 R. 로버츠는 거대 산업 부문과 소외된 비공식 부문 간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거대 산업 부문의 일정한 성장과 비공식 부문의 팽창은 거대 산업 부문의 이해와 비공식 부문의 이해가 대립하게 만드는 혹은 대립하는 듯 보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그 속에서 거대 산업 부문과 비공식 부문이 서로 갈등하며, 정작 모순의 원인이 된 산업화 정책의 실패와 국가 및 자본의 횡포는 은폐된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을 펴던 시절에도, 19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도래한 신자유주의 시기에도 유지된다. 결국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팽창의 기본 논리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장부터 6장을 통해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라틴아메리카의 도시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사회문제인 불평등, 종속 그리고 정치 불안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이 책을 읽으면, 브라이언 R. 로버츠가 혹시 도시화를 사례로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의 발달사 혹은 라틴아메리카판(版) 자본론을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에 대해 늘 마르크스가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던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물론” 이라고 간단히 답변해주었다.

노동자는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시민권의 확장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며 자본론을 떠올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발전에 갖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라틴아메리카 구조적 모순을 가져온 원인은 개별 노동자 혹은 노동자 단체의 행동이 아니라고 보았다. 종속적이고 파편화된 산업화 및 자본주의 발달의 과정이 가져온 거대한 사회구조들의 상호작용이 라틴아메리카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이기에 개별

빈민 혹은 도시 노동자가 이러한 구조에 대해 갖는 힘은 미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탄탄한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어디 있을까?

이에 대한 브라이언 R. 로버츠의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이 7장과 8장이다. 이 부분을 통해 브라이언 R. 로버츠는 “구조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개인과 집단들을”을 소환한다. 그는 구조의 결과물로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조건을 부여받았으나 “구조의 꼭두각시가 아닌 사건들을 유발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위자로서(p.157),” 구조에 도전하거나 구조를 수정하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시 조망하였다. 과연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적대적이었던 라틴아메리카의 자본 팽창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결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때로는 창의적이기까지 한 행위자였다.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도시빈민들은 무기력하고 소외되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때로는 정당 활동으로 때로는 주민회의 활동으로 때로는 가족 단위로 그들에게 놓인 사회구조적 조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브라이언 R. 로버츠의 시각은 그의 제자이자 콜레히오 데 멕시코(Colegio de Mexico)의 사회학자인 메르세데스 곤살레스 데라로차(Mercedes González de la Rocha)가 1994년 출판한 『빈곤의 자원: 멕시코시티에서의 여성과 그 생존전략』(Resources of Poverty: Women and Survival in a Mexico City, Oxford: Basil Blackwell, 1994)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 결과 브라이언 R. 로버츠는 7장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매우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발견해내는 라틴아메리카 빈민들의 능동적인 행위와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 조그마한 자원은 혈연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지연이 될 수도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빈민촌을 브라이언 R. 로버츠와 곤살레스 데라로차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이는 불행한 도시화의 희생자들이 도시 외곽으로 떠밀려 살아가는 거대한 수용소가 아니라 도시빈민들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거대하고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이곳에서 농민(peasants)들은 도시 빈민이 되고, 노동자가 되고, 중국에는 브라이언 R. 로버츠가 기대하듯이 시민이 된다.

이렇듯 도시 빈민을 수동적인 희생자들이 아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은 오늘날 도시화 혹은 도시빈민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각이다. 가장 최근 출판된 라틴아메리카 도시화 관련 도서인 『맨손으로 만든 도시: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빈곤과 비공식성』(Cities from Scratch: Poverty and Informality in Urban Lati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를 소개하며 듀크대학교 출판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라틴아메리카 대도시 주변 빈민촌이 마약과 폭력의 희생양이라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빈민촌이 실은 라틴아메리카 도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경제구조의 변화, 민주화, 정체성 운동 등 다양한 사회 변혁의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14).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진 않고 유지되는 이론적 발견과 분석들을 제시하는 글인 까닭에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출판된 지 19년을 맞이하는 지금도 유의미한 명저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장 느슨한 연결고리는 7장에서 8장으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농민이 도시 빈민이 되고 이들이 다시 라틴아메리카 산업화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빈민들은 매우 능동적이고 심지어는 창의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은 그가 진행한 다년간의 라틴아메리카 연구로 사실상 증명된 주장이다. 즉 1장부터 7장을 관통하는 브라이언 R. 로버츠의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우리는 이 책에서 무수히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시민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브라이언 R. 로버츠가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출간한 1990년대 초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강타한 경제위기의 끝에서 수입대체산업화정책은 폐기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왔다. 라틴아메리카의 말형으로 행세하던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는 나라로 변신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포기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게 국가의 약화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민주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민주화 물결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도혁명당 1당 체제를 유지해 온 멕시코에서 PAN(Partido Acción Nacional)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정점을 찍는 듯 보였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원주민운동은 노동운동 중심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이 진화하는 것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는 노동 계급의 형성과 계급 갈등의 역사에 집중하던 브라이언 R. 로버츠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중요성 및 그 한계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이념의 종언이 공공연히 선언되던 당시,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라틴아메리카의 변혁을 여전히 견인해 낼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을 모색하고 싶었던 듯하다.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정도로 강력한 능동성은 아쉽게도 정치적 민주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브라이언 R. 로버츠의 결론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국가를 견제하고,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시민사회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정치적 동의를 의미하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빈민과 노동자들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배계급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지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p.183). 그렇다면 라틴아메리카의 허약한 시민사회는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을까?

기에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nell)은 1980년대 중반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정치참여의 확대가 결국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확장된 정치참여의 열기는 견고한 정치제도의 부재로 인해 결국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위임민주주의'가 도래했다고 주장하였다. 오도넬의 이러한 비관적인 분석에 많은 정치학자가 동의하였다. 하지만 브라이언 R. 로버츠는 이러한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라틴아메리카 사회변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경제적 구조가 지난 40여 년간 경험한 변화 또한 주목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참여가 시민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특히 사회적 시민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통로를 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적 시민권을 확장하고자하는 서로 다른 연령, 성, 인종 그룹들의 소통과 정치 참여는 갈수록 활발해질 것이며, 이러한 소통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p.211).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출간되었을 때 학자들은 브라이언 R. 로버츠가 예측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한 학자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완벽한데 8장은 브라이언 R. 로버츠의 희망 섞인 당위라고 평가하였다. 즉 냉정한 과학적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래야한다는 다소 주관적인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R. 로버츠의 답변은 인상적이었다. 그는 오히려 당위적인 것이 왜 나쁜 것인가 반문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학자로서 사회 발전의 방향이 어떠해야한다는 당위적 주장을 펴는 것은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학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지점에서는 필자는 1

장과 8장까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연구 결과물이라면 8장은 그 결과물에 바탕을 둔 라틴아메리카 사회 발전의 대안인 것이다. 물론 그 대안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는 옳고 그름의 몫이지만 19년이 지나 다시 읽어본 그의 시민권 확장에 대한 주장은 아직도 큰 설득과 울림을 준다. 특히 교육과 의료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다양한 연령 그룹, 인종 그룹, 성 그룹 별로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라틴아메리카를 보면서 그의 19년 전 당위적 주장이 현실이 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판단해본다.

서평을 마치며

앞서 밝혔듯이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필자의 짧은 학문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도서 중 하나이다. 사회적 구조의 존재와 그 구조가 개개인과 집단에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학문 영역으로서의 사회학적 방법론의 장점을 살려 브라이언 R. 로버츠는 라틴아메리카 도시화의 사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파악하였고, 그 구조들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사회구성원들 그리고 집단들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우리에게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빈곤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을 자본주의 확장과 계급 관계 속에서 찾아야한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동시에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변화시킬 대안으로서의 시민권 확장을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판(版) 자본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와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나날이 가벼워지고 트렌디해지는 학문 풍토 또한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브라이언 R. 로버츠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교직에서 은퇴한다고 한다. 교직에서의 은퇴가 곧 학문의 종단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평생 왕성한 학문적 열정으로 라틴아메리카 사회학의 거목이 되어준 브라이언 R. 로버츠의 은퇴를 이 서평을 통해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

참고문헌

- Roberts, R. Bryan. 1973. *Organizing Strangers: Poor Families in Guatemala*. Austin and London: University of Texas Press. To be published in Spanish in 2011.
- _____. 1978. *Cities of Peasants: The Political Economy of Urbaniza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Edward Arnold. Translated into Spanish: 1980 *Ciudades de Campesinos*, Mexico: Siglo Veintiuno.
- _____. 1995. *The Making of Citizens*. London: Edward Arnold.
- Roberts, R. Bryan., E. Archetti and P. Cammack. 1987.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London: Macmillan.
- Roberts, R. Bryan. and Norman Long. 1984. *Miners, Peasants and Entrepreneurs: Regional Development in Central Peru*. Cambridge and London: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Reprinted 2009. Translated into Spanish: 2002: *Mineros, Campesinos y Empresarios*,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 Roberts, R. Bryan. Robert Cushing and Charles Wood. 1995. *The Sociology of Development*. Volumes 1 and II. Cheltenham: Edward Elgar.
- González de la Rocha, M. 1994. *The Resource of Poverty: Women and Survival in a Mexican City*. Oxford: Basil Blackwell.
- O' Donnell, G. 1992. "Delegative Democracy?" Working Paper No. 172, Helen Kellog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Notre Dame, Notre Dame, Indiana.

박윤주 -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